

# 구례군, 문화재청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 선정

## 매천 황현 문화재 활용 다양한 사업 예정

구례군은 지난 16일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2020년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교육지원으로 활용하여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역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구례군에서 선정된 사업의 유형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테마 문화재 학당으로, 사업

명은 '천 줄기 눈물로 마지막 시를 쓰다 : 매천 황현 만나기'이다.

사업의 대상은 11세 이상 청소년이며 ▲매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시선(時選)집중, 매천 황현, ▲토크 콘서트 등의 세부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단순히 문화재를 관람하는 것에 그쳤던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강의, 체험, 답사 등 실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가운데 '테마 문화재 학당'은 전국에서

총 7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전남 지역 군단위로 구례군이 유일하다.

구례군에는 각종 유·무형 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무형문화재 등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례향교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HAPPY 구례향교'는 현장 검토와 관람객 만족도,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2018년 문화재청의 우수 사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 광양시,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서비스' 수료 축제 성료



광양시보건소는 지난 18일 광양 국민체육센터에서 주민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마을 단위 건강서비스' 수료 축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서비스는 의료취약지역인 보건진료소 지

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고 고품격 보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 12개 보건진료소에서 24개 마을 주민 약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어르신들의 건

강문제 1위인 '만성질환 완전정복'을 주제로 건강관리일지를 이용한 교육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요리, 뇌 활성화 교육 등을 접목했다.

사업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소와 향토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음식 연구회, 재능기부에 열정을 가진 한국피부마용사회중앙회 광양시지부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찾아가는 마을 단위 건강서비스'에 참여한 주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소감 발표가 이어졌으며, 참여 강사와 재능기부자 등이 함께 어우러져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진행됐다.

#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방법 합리적 개선

## 농관원 담양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장실무자 TF팀을 운영, 가공업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

으며,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과 소비자단체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세부내용은 통신판매 분야 ▲통신판매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과 신고한 자로 명확화 ▲물품 제공시 영수증에 의한 원산지 표시 허용 등이며 가공품 분야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진하게)로 통일 ▲원산지 표시대상 중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원재료명 생략이 가능한 경우(3순위 이외의 미량 원료) 표시 생략 허용, 음식점에서는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가공품 사

용 시 표시범위를 주원료로 명확화 ▲음식점에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냉장고 등 보관장소의 원산지 표시 생략 허용으로 개정되었다.

담양 농관원에서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였다"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보성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센터, 웰니스 관광지 우뚝

## 2019년 한국관광공사 주관 '힐링·명상' 분야 선정



보성군 직영시설인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웰니스 관광지 '힐링·명상' 분야에 선정됐다.

'웰니스 관광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017년부터 힐링과 건강을 통한 여행·관광수요에 맞춰 선정·지원해 오고 있다.

보성군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2019년 웰니스 관광

을 붙여넣어주는 힐링 건강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9월부터는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웰니스 1박2일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특히,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2018년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한 제암산 자연휴양림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산림욕과 자연치유에 최적화 돼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제암산자연휴양림의 자연 자원을 심분 활용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최고의 치유·힐링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안구일 기자



#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화끈하게 쏜다

## 풍성한 경품 추첨 등

오는 26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이하 엑스포)가 풍성한 경품 추첨 행사와 블랙데이 할인행사로 현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엑스포가 e-모빌리티 전문 산업 박람회인 만큼 국내 e-모빌리티 제조 및 판매 기업에서 다양한 e-모빌리티 제품을 선보이고 이중 50대의 제품들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주)메시스코의 초소형전기차 'D2', 대용 EV자동차의 전기삼륜차와 농업용 전기차를 필두로 코리아이비와 시티코코, 에이치비, 유신픽스 등 여러 참가기업에서 제공하는 전동휠,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전기 킥보드 등 총 50여 대의 다양한 제품이 행사기간 중 매일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응모 관람객에게 제공된다.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경품에 추첨되지 못한 관람객에게도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매일 초소형 전

기차,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전동휠 등 총 500여 대의 e-모빌리티 제품을 추첨을 통해 시중가의 50%를 할인하여 판매하는 블랙데이 행사를 성대히 개최할 예정이다.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는 현장방문 관람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제품을 할인 판매와 경품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방문객의 많은 관심과 행사 방문을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장에서 근무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